



총무원장 자승스님(사진 가운데)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스님 등이 사찰음식을 체험하면서 웃음꽃을 피웠다.

사진 김형주·신재호 기자

“가장 한국적인 불교문화 불교예술 여기에”

총무원장 스님, 예술작품 즉석구매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내빈들은 개막식 후 박람회 전관을 둘러봤다.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라운딩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제1관 불교아트페스티벌(BAF)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 전통예술작품이 전시된 부스에 머물며 작가들에게 작품을 일일이 설명 들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일부 작품을 직접 구매하기도 하면서 더욱 애정을 드러냈다. 2관에서는 서울 봉은사 부스와 전국 스카우트 불교연맹 등에 금일봉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입주한 3관에서는 각 사찰 전통음식과 음료를 직접 시식하며 우리 문화의 진수를 맛본데 이어, 문화사업단이 전개하고 있는 소식 캠페인에 서명하며 동참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박람회를 즐겼으며, 나선화 문화재청장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함께 어울렸다.

“미안마 어린이들 그림 선봬”

제3세계에서 국제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교NGO들의 이색전시회가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은 아프리카 농업기술학교건립 사업을 알리기 위해 현지 주민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 20여점을 선보였다. 야생동물 작품을 전시하고 커피를 무료로 제공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아름다운동행 관계자는 “홍보지 1000부를 준비해 왔는데 예상외로 많이 나가 추가로 더 찍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프라마스는 근사한 예술작품을 관람하고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미안마 어린이들을 돕는 프로젝트전을 개최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작가들로부터 그림 및 사진 15점을 재능기부 받아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태국 국경지대 난민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안마 어린이들의 미술치료 작품도 내놔다. 이은강 씨는 “이국적인 공예품을 감상하면서 뜻 깊은 후원에 참여해 행복하다”고 말했다.

“생명나눔에 동참해서 행복”

장기이식을 기다리며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을 위한 생명나눔운동 캠페인에 동참이 잇따라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장기기증희망등록 5000명 달성을 위해 ‘스님 1000명 모시기’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생명나눔 확산을 위해 신청서 작성 및 홍보 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쳤으며, 자원봉사자들과 박람회 전시장을 돌며 책자를 전달하는 순회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희망등록 신청서 작성자는 총 32명. 권유훈 기획실장은 “캠페인으로 생명나눔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고, 동참자도 늘고 있다”며 “장기이식대기 환자들에게는 이 운동이 새로운 삶을 열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2014 불교박람회, 첫 날 풍경

대한불교조계종 이름으로 처음 열린 2014불교박람회. 지난 6일 서울무역전시장(코엑스)에는 한국불교의 문화·예술·산업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국 지방공공에서 동지를 들고 불교문화산업에 매진해온 230여 참가업체와 단체가 376개 부스로 나누어서 자식같이 귀한 상품들을 다채롭게 선보였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축하와 격려를 받으면서 경제어산 법패공연으로 개막한 불교박람회는 붓다아트페스티벌을 중심으로 꾸러진 제1관, 성철스님 특별전과 불교출판 도서전이 주를 이룬 제2관,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마당으로 단장한 제3관으로 구성됐다. 1·2·3관을 아우르는 로비에서는 불교계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마스의 ‘아트 도네이션 프로젝트’가 열려 미안마 사진들을 선보이는 ‘20만원 전’이 열려 나눔을 실천하는 계기가 됐다.



발길 사로잡은 템플스테이 사진전

한국인 최초로 칸느 국제광고제 황금사자상, 뉴욕 페스티벌 금상을 수상하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프로필을 촬영한 것으로 유명한 박상훈 사진작가가 이번 불교박람회에서 지난 1년간 찍은 템플스테이 사진 일부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사찰과 템플스테이에 관심이 많은 작가는 지난 1년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도움을 받아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을 직접 찾아다니며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목탁도 이제 디자인 시대”

지난해 SBS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에서 ‘목탁달인’으로 유명해진 김덕주 전통목탁명인은 이번 박람회에서 다양한 목재와 디자인으로 새롭게 제작한 목탁들을 선보여 스님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살아있는 불교기모양을 형상화한 어형목탁과 연화무늬를 활용한 가지각색의 목탁이 등장했다. 영천 참선공예에서 30여년간 홀로 목탁제작의 외길을 걸어온 김 명인의 부인 최정은씨는 “목탁에 다양한 문양과 회화를 결합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접목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카툰작가 배종훈 ‘깜짝작품’

이른바 ‘명상카툰 작가’로 불리는 배종훈 씨가 올해 처음 불교박람회에 나타났다. 붓다아트페스티벌 ‘만화(만화)만화(만화)’에서 주호민 작가, 지찬스님, 용정은, 양정수 작가 등과 함께 참석했다. 최근 SNS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는 이번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작품들을 따로 작업했다. 따끈 따끈한 배 작가의 최신작을 코앞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카툰만이 아니다. 핸드폰 케이스와 염서 등 아기자기한 소품들에도 배 작가 특유의 따뜻한 숨결이 배어 있다.

헤민스님, SNS 올리자 흥피 다운

이번 박람회도 지난해처럼 헤민스님의 활약이 눈부셨다. 불교박람회 홍보대사 헤민스님은 지난 3월1일과 2일, 그리고 개막 당일인 6일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 불교박람회 개막 소식을 전했다. 스님은 트위터를 통해 “사찰음식 대축제와 템플스테이, 불교문화상품 전시회와 불교인문학 강연 등이 함께하는 불교박람회가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시작됩니다”라고 적었다. 이후 불교박람회 공식 사이트는 접속 폭주로 다운되는 사태를 맞았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인 헤민스님은 현재 학기 중이라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홍보 동영상과 버스 광고에 등장하고, SNS 홍보도 두 차례나 해주는 등 홍보대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불교박람회에 대한 지극한 애정을 드러냈다. 김하영·하정은·어현경·홍다영 기자

①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소금만다라’ 체험코너에서 한 스님이 어린이에게 지도하는 모습. ②2014불교박람회 공동주관 <불교신문>에 대한 참가자들의 관심도 높았다. ③총무원장 자승스님 등이 부스를 돌면서 불교문화·예술인들을 만나 격려했다. ④2014불교박람회는 지난해에 비해 더 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⑤젊은 사미·사미니 스님들도 박람회에서 많이 만날 수 있다. ⑥7탁본을 선보이는 스님들과 사진전을 관람하는 사람들. ⑧예술작품에 조예가 깊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작가들과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